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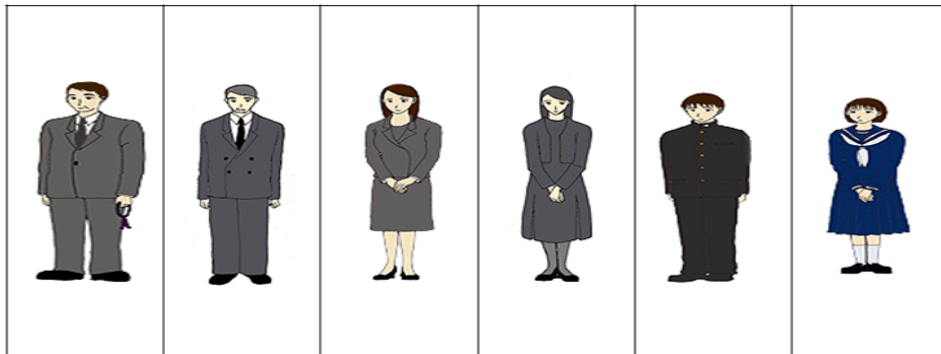
장례식 매너 1

-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참례하는 방식이 다르다 -

일본에서는 장의에 어쩔 수 없이 참석못할 경우, 편지를 보낸다.
장례식에서 나타나는 매너들에 대해 여기서는 소개한다.

- 장의(お通夜)는 유족, 친족, 고인과 특히 친했던 사람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식이고 고별식(葬式)은 고인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고인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의식이다.
 - 그러나 최근에는 장의를 겸한 고별식을 거행하고 있으므로 일반 조문객도 장의부터 참례하는 것이 많아졌다. 장의와 고별식이 다른 일정의 경우에는 고인이나 상가와의 교제의 정도로 장의부터 참례하는지, 고별식에만 참례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.
 - 형편이 어려워 고별식에 참석할 수 없는 대신에 장의만 참례하는 사람도 많다.
-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장의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에 「お悔やみ状」을 보낸다.
 - 그 때는 우선 조전으로 조의를 표하고 문상하는 편지를 쓰도록 한다.
 - 부의도 함께 보내는 경우, 장례식 봉투에 싸 현금 등기 우편의 봉투에 넣는다. 또한 문상 편지는 흰 봉투에 넣어 보내는 것이 매너이다.
 - 문상하는 편지는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남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짧아도 마음이 가득 찬 편지를 보내도록 유의하자.
- 장례식 복장

- 장례에 초대되었을 경우는 상복을 착용한다. 또 일단 귀가할 수 있는 경우도 상복을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근무처나 외출처로부터 직접 조문하러 갈 때는 특히 화려한 것이 아니면 평복으로 상관하지 않다.
- 남성: 블랙 슈트 혹은 회색의 다크 슈트.
- 여성: 흑색, 수수한 색의 원피스나 슈트 흑, 감, 회색 등 수수한 색으로 광택이 없는 무지가 좋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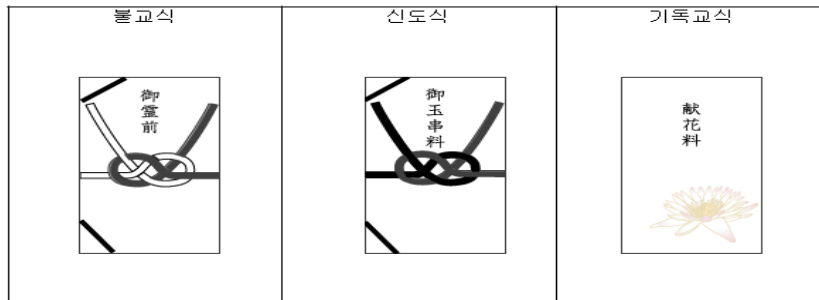
□ 부의금(香典) 액수 (단위: 만엔)

상대방	연령별				지역별	
	20대	30대	40대	50대 이상	관동 지역	관서 지역
전체	0.3	0.5	0.5	1	0.5	0.5
직장 상사	0.3	0.5	1	1	1	0.5
직장 동료	0.3	0.5	0.5	0.5	0.5	0.5
직장 부하	-	*	0.5	1	0.5	0.5
거래처 사원 가족	0.5	0.5	0.5	0.5	0.5	0.3
거래처 관계	-	0.5	1	1	1	1
지인, 친구	-	0.5	0.5	0.5	1	0.5
지인, 친구의 가족	0.5	0.5	1	0.5	0.5	0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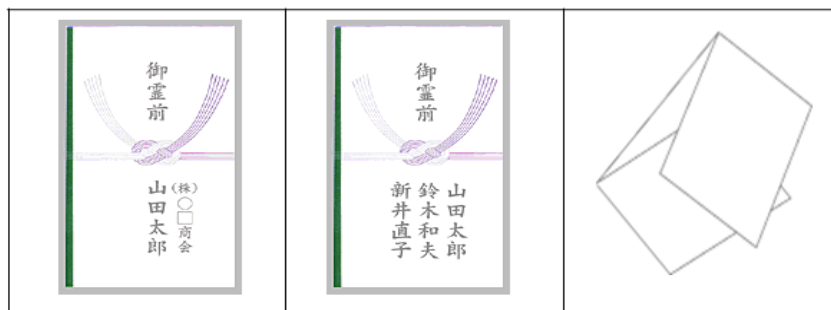
□ 부의금 포장 방법: 결혼식과는 반대

- 부의봉투도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다. 보자기(없으면 검은 손수건)에 싸서 가지고 간다.
- 부의에 넣는 돈은 현 돈으로 해야 한다.
- 결봉투에 「御霊前」(대부분 이것을 쓰지만 종교에 따라 쓰이는 말도 달라질 수 있다)와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쓴다.

- 안봉투에는 뒷면에 금액과 주소, 이름을 적는다(앞면은 쓰지 않는다).
겉봉투의 주소 및 이름은 묶은 먹빛으로 쓴다.
- 종교에 따라 쓰이는 부의봉투가 다르다. 어떤 형태인지 미리 파악해야 한다.



- 여러 명이 함께 부의금을 내는 경우, 겉봉투의 주소는 3명까지이며 3명 이상일 경우, 00회 일동 등으로 하여, 전원의 이름을 쓴 종이를 안 소포에 넣어 둔다. 쓰는 법은 오른쪽으로부터 손윗사람의 순서이다.
- 장례식봉투의 뒤편은, 위쪽을 아래에 씌운다. 슬픔을 물로 씻어내다 혹은 슬픔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.



〈보자기 싸는 방법〉

